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'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' - 이철 -

숫자에 밝지 못해도
어려운 공식을 외우지 못해도
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
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
돈 세는 것이 서툴고,
물정에 어수룩해도
음식을 나눌 수 있다면
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
외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
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
폴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
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
줄 서기를 잘 못해서
매번 손해를 본다고 해도
그럴싸한 말로 다른 이들을
내 편으로 만들지 못해도
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다면
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
인류의 시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라도
색깔 다른 콩 두 개가
어떤 모양의 콩을 만들어내는지
알 수 없어도
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
놀랄 수 있다면
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
글쓰기를 조금 못해도
책읽기가 조금 서툴어도
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뜻을 물을 수 있고
헤아릴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
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
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
조각칼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해도
하늘의 구름이 무슨 모양인지
상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
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
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
책망하기보다
용서해줄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
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'반대하는' 특기를 갖기보다
'찬성하는' 마음을 가진다면
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
노래를 잘 부른다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
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없어도
새와 함께 휘파람을 불 수 있다면
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
서로 믿어주고, 서로 희망이 되어주고
서로 사랑할 줄 안다면
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.
하나님을 닮았다면
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.



◀그림말씀▶ 해 병 대

팔각모, 빨간 이름표, 각잡힌 바지 주름..
참 멋진 모습입니다. 그러나 멋진 만큼 훈련
은 가장 고됩니다.
고난을 겪어난 사람만이 멋진 모습을 보여
줄 수 있습니다.
“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
기도할 것이요” - 약5:13 -

교 회 목 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	전도: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의 증인됩니다 (눅 24:48)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2009 11권 24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9년 6월 14일
☎ 369-5077. St David's Church. 70 Khyber Pass Rd. Grafton . www.calvary.org.nz		

◀기쁜 우리 날들▶

아내와 나 사이

이생진



아내는 76 이고
나는 80입니다
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
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투 사이입니다
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

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
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
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
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
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
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
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
서로 모르는 사이가
서로 알아가며 살다가
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
그것을 무어라고 하겠습니까
인생?
철학?
종교?
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

◀말씀 따라 행하기▶

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
꽃잎이 떨어집니다
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면
우리의 악한 모습도 꽃잎처럼
사라집니다

◀인품 따라 행하기▶

자신을 위해
남을 험담하는 것은
잠시 위안 받는
마약과 다름 없습니다.

